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3월 7일 화요일 (음 2월 8일) 제176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완성 못해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들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 도중 “수사 절반에 그쳐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하며 인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특검은 수사기간 동안 겪어왔던 아쉬웠던 사항을 토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관련기사 3면>

후임 헌법재판관에 이선애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이정미(55)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선애(50) 변호사를 내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 제111조3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철저히 심사하고 평가한 뒤 이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측은 “헌재 기능과 역할을 증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자 주요 인선기준이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승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한 뒤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 내정자는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사직적심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뉴스



쌀 우선지급금 환수 놓고 농민·정부 갈등 심화

농민단체 “정부 쌀 가격 안정 정책 실패, 농민에게 전가 우선지급금 환급 고지서 전체수집해 소각 투쟁 벌일 것”

정부 “쌀값에 국민세금 포함돼... 환급 받아야” 입장만

쌀 가격이 폭락하면서 정부가 농민들에게 지급했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중 일부를 환수하려 해 농민과 정부의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해 쌀값이 2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터에 농민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돌려줘야 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우선지급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5년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다. 농민들은 정부의 우선지급금 반환 추진은 쌀 가격 안정 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떠안기는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 등을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급했던 쌀값 안에 국민들의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쌀 우선지급금이란 정부가 쌀 매입

전 농가에 미리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정부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 격리곡을 대량 매입할 때 현장서 이 돈을 준다. 대개 수확기인 10~12월의 평균 가격을 적용한 뒤 12월말 즈음 정확한 금액을 책정한다. 만일 쌀 매입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높으면 정부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반면 우선지급금이 더 높으면 차액을 정부가 돌려받는다. 그런데 지난해 쌀값이 크게 폭락했다. 1995년 이후 최저치인 12만9711원(수확기 산지 80kg기준)까지 떨어졌다. 정부와 농민단체는 이를 예상치 못했다. 지난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1등급 40킬로그램 포대를 기준으로 산

지 쌀값의 93% 수준인 4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실제 쌀의 매입가격은 그보다 낮은 4만4140원. 때문에 농민들이 앞서 정부로부터 받은 지급금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3년만에 쌀값이 최저치로 떨어진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가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농민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쌀값이 떨어진 것이니 그 책임 또한 전적으로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쌀값의 폭락으로 농가의 생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도 호소하고 있다. 김제시농민회 관계자는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쌀 농사 지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농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우선지급금 환급 고지서를 농민회에서 전체 수집해 소각처리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급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환급을 요청하는

고지서를 농가에 발송했다.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만 농식품부는 해당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지급금과 관련한 계약서에 각 농가가 이미 서명한 상태”라며 “환급을 거부한다면 우선지급 시스템의 지속적 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와 다른 작물 재배 농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환급이 필요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부의 강경 입장에 농민단체들은 단행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현재 문제를 농민만의 문제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양곡 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책임도 함께 질 수 있도록 하는 특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매일 INDEX
3면 -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

국가식품클러스터 해외 우수식품 연구기관 ‘등지’

영국 ‘Campden BRI’ 연구분소 개소

익산시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해외 우수 식품연구기관으로 최초 영국 ‘Campden BRI’가 연구분소를 개소한다. ‘Campden BRI’는 세계 75여개국 2,500여개 회원을 대상으로 식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민간 연구소로 캘러그, 하인즈, 다농 등 글로벌 식품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내의 식품 관련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글로벌 식품기술·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국내·외 연구소 유치를 위해 그동안, 포럼, 세미나 및 공동기술 연구개발 등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관련 연구기관들과의 상호관계를 공고히 해왔다. 이에 대한 사업추진의 성과로 영국 ‘Campden BRI’가 7일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연구분소 현관식을 하고 국내 관련대학,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연구인력과 함께 식품관련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연구하게 된다.

2019년 이후에는, 클러스터 내 별도 연구소 유치·설립 및 연구 인력 상주를 통해 입주기업 니즈에 대한 식품과학 선진기술의 지속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독일 식품연구기관인 ‘프라온호퍼 IV’도 2018년 중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한국 연구지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함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글로벌 연구단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식품기업 기술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부안 해역서 규모 2.0 지진

6일 오전 6시21분께 전북 부안군 북서쪽 24k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축제

제13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2017. 3. 11(토) ~ 12(일)

진안군 주천면 윤일암반일암 삼거광장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75-1)

축제 즐길거리

첫째날 : 건강걷기대회(0.5L 고로쇠수액 무료 증정, 11:30), 팔딱팔딱 송어잡기, 개막식(14:20), 소원성취 떡나눔행사, 고로쇠가수왕 선발대회 등

둘째날 :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등반대회(10:00), 고로쇠 OX퀴즈, 고로쇠 빨리 마시기 대회, 진안고원 드론대회, 웃놀이대회 등

우 린 먹 는 물 이 달 라

주 최 | 진안고원운장산고로쇠축제위원회
 축제문의 | 문화체육과(T.063-430-2393)
 구입문의 | 주천면사무소(T.063-430-8391)